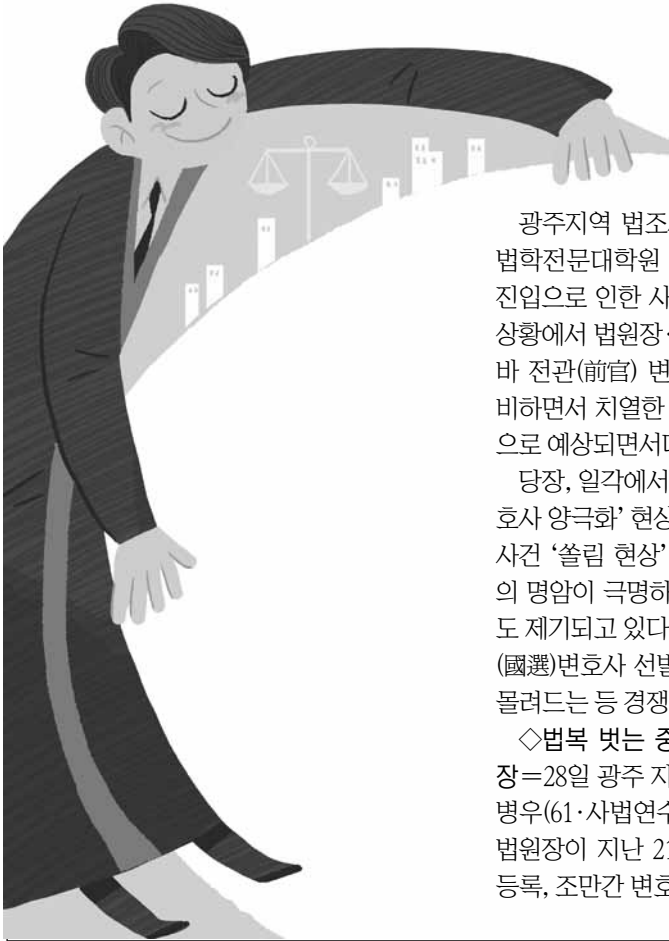


# 중량급 몰려온다...광주 변호사업계 요동



광주지역 법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거 진입으로 인한 사건 선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법원장·부장판사 출신 등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들까지 개업을 준비하면서 치열한 생존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장, 일각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변호사 양극화' 현상에 전관 변호사 위주의 사건 '솔림 현상' 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실시하는 국선(國選)변호사 선발에도 변호사들이 대거 몰려드는 등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법복 벗는 중량급 판사들, 업계 긴장=28일 광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장병우(61·사법연수원 14기) 전 광주지방법원장이 지난 21일 변호사회 회원으로 등록, 조만간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활동

## 장병우 전 지법원장 등 개업 준비 잇따라 치열한 수임경쟁 예고...국선도 대거 지원

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인 객민섭(50·연수원 27기) 판사를 비롯, 이욱형(45·" 27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장정희(47·" 28기) 광주지법 장흥지원장도 다음달 법복을 벗고 광주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에 들어간다.

김춘호(44·" 27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서울 대형 로펌으로 옮길 것으로 전해졌고 김경배(41·35기) 광주지법 형사 단독 판사도 순천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원에 근무했던 부장판사들의

경우 '퇴직 전 근무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광주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매년 늘어나는 변호사=28일 광주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은 모두 346명이다. 지난해 1월 297명이던 변호사들은 지난해 3월 305명, 로스쿨 졸업자들이 진출하는 시기인 10월엔 325명까지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판사 외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용주·박홍기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광주

### 변호사 개업 준비하는 중량급 판사

- ▲장병우(연수원 14기) 전 광주지법원장
- ▲객민섭(" 27기)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 ▲이욱형(" 27기) 목포지원 부장판사
- ▲장정희(" 28기) 장흥지원장

에서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열한 사건 선임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소비를 받을 수 있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점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솔림 현상'으로 인한 사건 선임 양극화가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국선변호사, 경쟁률 치솟아=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원이 실시하는 국선변호사 선발에도 변호사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의 경우 올해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변호사 5명을 뽑는데 33명이 몰리면서 6.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6명을 뽑는데 23명이 신청, 3.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경쟁률이 높아졌다. 선임료의 심리적 지지선인 330만원이 깨지고 한 해 고작 20~30건의 사건만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은 등 업계 경쟁과 불황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사건을 꾸준히 맡을 수 있는 국선변호사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지역 법관제까지 폐지되면서 지역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은 사례도 늘고, 그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시각도 있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한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검찰, 목포해경 123정장 징역 7년 구형

### 다음달 11일 선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부실한 구조 활동으로 비판을 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해인) 전 경위에 대해 "해양경찰관이자 현장 지휘관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기본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사는 또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서 검찰의 구형을 지켜본 피해자가족 등은 "구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국내에서는 유례없이 현장 지휘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피고인 변호인측은 맞지 않는 사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해상수색 구조매뉴얼 등에 따른 선내 승객 상황 확인 및 구조활동 지휘 등을 소홀한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立春大吉...봄을 기다리는 사람들

28일 오전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북구노인복지센터 서예반 회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봄을 알리는 '입춘대길'과 '건양대경' 등 입춘방을 써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어머니 살해 방화 혐의 탈영병 검거

최근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화재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인 군헌병대에 의해 검거됐다.

28일 서울 도봉경찰청에 따르면 군헌병대 근무이탈 체포조는 이날 새벽 0시 5분께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지하상가 벤치에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탈영병 강모(21) 일병을 붙잡았다.

군헌병대는 전날 오후 11시 9분께 강남역 인근 편의점에서 강 일병이 음료수를 산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 위치를 특정해 강 일병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6시 58분께 도봉구 방학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방화 사건에서 불이 나 이모(여·5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두개골 골절이었으며, 불은 이미 이씨가 숨진 뒤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들 강 일병이 화재 직전인 22일 오후 6시 40분께 집에 있었고, 화재 직후인 같은 날 오후 6시 56분께 집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해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강 일병은 강원도 화천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사건 당일 복귀할 예정이었던 복귀하지 않아 탈영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군헌병대가 강 일병을 검거함에 따라 앞으로 살해 혐의 등은 군헌병대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급금지의 수사 기록을 군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로비 의혹' 전 해참총장 장남·전 해군작전사령관 체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정장)은 대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의 장남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을 28일 오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총장의 아들과 윤 전 사령관은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던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의 부대 행사였던 요트 대회의 광고비 명목으로 당시 STX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의 장남이 대주주였던 요트엔 컴퍼니가 요트 대회를 진행했는데, STX

측은 이 대회에 광고비로 7억여원을 후원했다.

윤 전 사령관은 STX 상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 후원액이 사실상 정 전 총장을 염두에 둔 뇌물이라고 판단할 만한 정황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정 전 총장을 소환하지 않자 서초 일류STX 사장 등 전·현직 STX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최근에는 요트행사 후원을 결정한 강덕수(64·구속기소) 전 STX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

## 동네 형 승용차 훔쳐 교통사고 출렁량 '철없는 고교생들'



○동네 형의 승용차를 훔쳐 운전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출렁량인 '철없는' 고등학생들이 경찰서행.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17)군 등 2명은 지난 15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김모(25)씨의 원룸 앞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던 중 5m도 못 가서 담벼락을 들이받았

다는 것.

○김군 등은 차 주인 김씨가 출동한 경찰에 이들의 학교명을 알려주면서 손쉽게 검거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김군 등은 "동네 형 집에서 놀던 중 열쇠를 발견하고서 '별 일 없겠지' 하는 맘에 차를 몰았는데 시동을 걸자마자 사고가 날 줄은 정말 몰랐다"며 때늦은 후회.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울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 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앞(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원지구 4층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원지구 4층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 나주 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환인→2억8천

###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환인→2억8천

010-6832-9700

###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100평)

①1층, 2층 3층, 4층, 4층  
②월수익 1,020만  
③전사가 다입주 되어있음

010-6670-9800

###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 1 기본 경매 강의
- 2 바로 실전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010-6670-9800

###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 오전10시~오후 7시  
☎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1 목포시 상락동(토221㎡, 건548㎡) 감정가3억7천, 최저1억7천
- 2 장성 삼계(토1068㎡, 건631㎡) 감정가2억5천, 최저9천1백
- 3 순천시 행동(토373㎡, 건1304㎡) 감정가172억, 최저120억
- 4 구례군 산동면(토1329㎡, 건958㎡) 감정가5억2천, 최저2억3천
- 5 동구 계림동(토445㎡, 1558㎡) 감정가10억, 최저7억5천
- 6 북구 운암동 (토273㎡, 건물247㎡) 감정가2억, 최저가1억7천3백
- 7 북구 중흥동 (토133㎡, 건물253㎡) 감정가1억7천, 최저가1억1천
- 8 남구 서동(토306㎡, 건물90.18㎡) 감정가1억6천, 최저가 1억1천

오피스텔

- 1 서구 치평동(대5.23, 건물331.12) 감정가6천7백, 최저가3천7백
- 2 서구 화정동(대14.144, 건물44.35) 감정가5천, 최저가5천

공장

- 1 광산구 월전동(토지4162㎡, 건물3281㎡) 감정가30억, 최저가16억
- 2 북구 월출동(건1746㎡) 감정가25억, 최저가11억
- 3 광산구 지죽동(토2073㎡, 건물1187㎡) 감정가16억, 최저가9억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